

### 제3회 신행수기공모 당선작 발표

시상식 1월24일 오후2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한 '98 제3회 신행수기 공모'에 총 1백2명의 작품이 응모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불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불자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바른 신행의 실천으로 큰 감동을 주는 7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월24일 토요일 오후2시 현대불교신문사.

#### ◇대상(유마상)

##### 백일기도

이매림(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 자주명 법등명

이태순(서울시 양천구 신원6동)

#### ◇우수상(본사 사장상)

##### "어머니 불교를 다시 믿읍시다"

박윤희(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 ◇특별상(중단협회장상)

##### "미국까지 와서 불교를..."

김연정(뉴욕 유니온가 29-12)

####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 진실한 믿음

조영숙(대전시 대덕구 범동)

##### 나한도랑에서 맺은 인연

김재화(울산시 중구 대인동)

#### ◇특별상(불교진흥원 이사장상)

##### 참회의 눈물

안금숙(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심사위원 △법산스님(본사 본설위 원·동국대 불교대학장) △고은(본사 상임고문·시인) △김광삼(본사 사장) △최정희(본사 편집국장)

# 백 일 기도

이 매 림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1)

겨울의 문턱에서 나는 또 백일기도를 시작한다. 오늘(97.11.28)이 입재. 내년 3월 초순 내 생일이 희망일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 작년 기도는 절실하고 절박했던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올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고행도 벗어내면 그리움으로 남듯이 작년 나의 삶이란 얼마나 끈고(困苦)했었나. 예년(往年)을 눈 앞에 두고야 삶이 편안하다고 실감하며 부처님 전에 오체투지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인가.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을 신산했던 날들로만 반추하지 않으니 어찌 부처님의 위력을 의심하리. 삶이란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씩 꺼지고 가는 길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렇다. 분명 그것은 사실이었다.

큰애의 중학교 입학식 날부터 나에게 불행과 즐거움을 하는 단어들이 앞을 다투어 쏟아져 나왔다. 회사부도·채무자·재권자·실직·

이십여 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는 나에게 관음보살이었다.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시절, 그래도 어머니는 그 시절의 어려움을 같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열두 쪽 치마 쪽으로 사남매를 이리저리 감싸면서 넉넉하게 우리를 키워주셨던 어머니. 이제서 간절히 어머니가 그리워지니, 나 또한 어머니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허방을 짚고 돌며 불며 어머니를 부른다. 천수천안(千手千眼)을 가진 어머니시니 어디 계신들 막내딸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랴.

"아가, 울지말고 부처님 품에 안기어라. 거기 길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이 선연히 떠오른다. 새벽여불로 아침을 열고 관음정경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경생을 신심에 의지하셨던 어머니. 스님 대하기를 부처님 천견하듯이 행하셨던 어머니. 알음알이만을 찾는 우리들의 신심을 향해 "무조건 믿어라. 기도의 끝은 있다. 기도의 끝은 분명히 있다"를 강조하셨던 어머니.

## 남편의 부도 실적으로 찾아온 절망 시어른·아이도 내 삶의 뿌리 흔들고 '나는 왜 이런가' 의문에 어머니님 모습이...

해약·담보... 실상가상이라는 단어까지 합쳐 하여 협공해 울 줄이야. 항상 버림목이 되어주셨던 시어른까지 퇴직금 전액을 바라며 날리고, 당신들이 거처할 곳으로 우리의 눈치를 살필 줄이야.

나는 고통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그 절망은 그대로 큰애에게로 전이되어 갔다. 자연히 녀석의 학교생활은 풀과 기름처럼 걸췄었다.

시어른·남편·아이. 이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사람들이었다. 끝없이 밖으로 쏘아대던 원망의 화살이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로 되돌아올 줄을 느꼈다.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인 것들.

자생력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온 내 삶이 문재였다. 결코 나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자괴감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이런 어머니의 신심을 명산이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삶이 이토록 파헤쳐진 것일까? 죄책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래, 얼마인들 삶이 어찌 버림지 않았으리. 기도의 끝은 있는거야. 무조건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나는 분명히 일어나 기도처를 찾았다.

도봉산 관음암을 찾아가던 날은 10월 관음재 일이었다. 집을 나설 때부터 간간히 내리던 빗방울은 마당바위를 지나면서 눈발로 바뀌었다. 첫눈이다. 불혹의 고개를 넘은지 오래이건만 첫눈이 내릴 적마다 나는 소녀가 된다. 서설(瑞雪)이리라. 만장홍을 바라보니 이미 백발의 부처님은 입장에 드셨고 사방은 극락세계이다. 관음암에도 백의관음이 시현하셨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은 조금해졌다.

눈길을 재촉하며 두어 시간 만에 관음암에 도착하니 등허리는 땀으로 흥건하다. 바위 틈



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로 목을 축이고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여기가 천성이 아닌가. 수많은 돌부처님은 백의관음이었고 간간히 울리는 종경소리는 대웅전 처마 마루에 올라앉은 산까지와 회담을 나눈다.

눈사람이 되어 들어서는 나에게 주지스님께 서는 놀라운 반, 반가움 반으로 열린 문을 열어 주신다. 녹차향 그윽한 아랫쪽에서 스님은 온아한 미소로 옛날 이야기 하듯이 법문을 설하신다.

'영향상종(影響相從)'의 경구를 인용하며 신(眞)은 살계요 행(行)은 매리인 것을 어찌 나누어 생각하겠느냐며, 넌지시 나의 오만함에 반죽을 올리듯 하셨다. 덧붙여 종교를 거부하는 과학은 교만이요, 과학을 거부하는 종교는 미신이라며 행의 지극함과 기도의 성취에 대하여 여러 일화를 들려주셨다. 백일간의 관음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세번은 부처님 전에, 나머지 날은 집에서 자극 정성으로 행한다면 주변에서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신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다.

오전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보문종경·고행경·몽수경·법성경·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백팔합회와 명상으로 하루의 기도를 끝맺으셨다고 하셨다.

결연한 각오를 하면서도 이 한 겨울, 도봉산에서 제일 높은 관음암을 일주일에 세번 오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몸 고달프다고 어찌 기도를 포기할 수 있으랴. 차라리 정성이 받는 고통을 몸이 대신할 수 있다면 어디인들 몸들 못 단질까 하는 처절한 오기가 지속되었다.

(2)

96년 12월8일에 시작했던 백일 관음기도 일제일을 잊지 못했다. 큰 한해를 폭음과 미혹에 빠져 무명 속을 헤매던 남편도 선뜻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배반으로 되돌리는 인심을 향해 무수히 주먹질을 하다 지친 끝에, 운(運)을 바꾸어준다는 간언어살에 속아 장법을 멀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천정어머니의 신심을 기리며 분명히 일어서는 나의 용기에 남편 또한 발심한 것이다.

스님의 남다른 독경소리에 맞추어 부처님 전에 절을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눈물을 주레할 수가 없었다. 할잡하고 고개 숙일 때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만 부성어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런 나를 꼭꼭히 내려다 보시는 부처님께 한없이 죄스러웠다. 그러면서도

佛紀 2542年 戊寅年

##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밝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 ◆ 관음사 (포교당) ◆

부 설 : 금천 유치원

주 지 현 범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29번지  
TEL : 0391-43-2985/42-9975    유치부 : 0391-42-9976

대한불교조계종

### ◆ (재)한마음 선원 대구지원 ◆

지 원 장 : 혜 계

신 도 일 동

▶ 대구시 중구 남산동 2105-2번지  
TEL : 053-426-2779

대한불교조계종

### 원 효 사

주 지 현 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번지  
TEL : 062-266-0326

### ◆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

신 도 회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 051-403-7077

대한불교조계종

### ◆ 묘봉산 혜원정사 ◆

조 실 고 산 주 지 효 명

고 산 정 학 회    선 지 식 회  
자 비 회        지 정 회  
관음회 합창단    연꽃부부회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  
TEL : 051-866-7771~3    FAX : 051-866-7777

### 심천서예

원 장 양시우(심천)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2동 695-6번지  
TEL : 051-633-3338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 ◆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

원 로 보 안    원 장 지 관  
회 주 법 회    주 지 혜 총  
출 무 경 법    교 무 경 성  
재 무 경 원    지도법사    파만연    이육배    김영권

신 도 회 원 일 동    사무장    이준성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TEL :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 증 심 사

주 지 영 조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56번지  
TEL : 062-226-0107

한국불교원각종

### 지장암 포교원

주 지 진 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4-6  
TEL : 062-232-5774

### 천보공업사

대 표 박 영 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9-3  
TEL : 051-315-2859